

THE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순위 내
국내대학 현황

세계순위	국내대학
13	경북대
27	연세대
74	경희대
92	한양대
95	전북대
101-200	아주대
101-200	충남대
101-200	강원대
201-300	전남대
201-300	순천향대

2022년 4월 발표된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우리학교는 세계 74위, 국내 3위를 달성했다.

(사진=엔스플레쉬)

▲기후 변화 2위(41명) ▲보건 증진 3위(37명) ▲불평등 해소 4위(36명) ▲글로벌 파트너십 5위(32명) 순으로 전임교원의 관심도가 측정됐다.

실천 분야로는 '친환경 그린캠퍼스 구축 사업'을 들 수 있다. 양 캠퍼스 총무관리처는 실무 TF(Task Force)팀을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형광등을 LED로 교체 ▲절전·절수 ▲분리수거 ▲냉난방기 교체 ▲Eco-Friendly Campus Week(집중휴무제) 시행 ▲전기차 충전소 설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ESG 경영 설득하려는 노력 필요

대학은 탁월한 연구 성과라는 학문적 목적을 넘어선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미래에 도사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이 갖는 전인적 인간 양성 의무와 윤리적 기여의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우리학교 역시 대학이 기여해야 하는 바를 인지하고 있었다. 권 부총장은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인간, 자연, 문명,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시대적인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대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ESG에 무지하거나 기후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학이 윤리적 소명을 다하는 것은 비단 공동체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라는 시기를 보내는 개인에게도 갖는 의미가 크기에 ESG 경영을 구성원에게 설득하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내 대학에서 ESG 경영이 전반적으로 피상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여러 전문가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은 최근 출간한 연설문집 『희망하는 인간, 전환의 길을 묻다』에서 자신의 교육적 소임을 밝혔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을 고양하는 것 외에도 시대가 청하는 대학인의 실천 역할을 사회와 세계로 전환해내야 하는 긴급한 책무를 안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권 부총장은 “구성원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홍보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ESG 전담 조직이나 해당 부서 처무에 반영하는 등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분야, 경영대 필수교과로 연구에선 기후변화연구 수행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ESG의 확산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과 ESG 열풍이 부는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짚어봤다.

대학가에 부는 ESG 바람
우리학교 세계 74위, 국내 3위

ESG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이나 조직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의미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자 국내 대학들도 본격적으로 ESG 경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건국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ESG 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고려대와 한림대학교 역시 지난해 4월과 9월 ESG 위원회를 설립했다. 경북대학교는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2040 탄소중립 캠퍼스’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세대는 ‘ESG 가치 측정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SK그룹의 ESG 경영을 정식 교양 강의로 개설했다. 한양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MBA 과정 내 ESG 전문 트랙 ‘HUBS ESG’를 신설했다.

우리학교는 올해 4월에 발표된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74위, 국내 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종합점수를 달성했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UN에서 선정한 17가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평가 항목으로 삼아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지표화한다. UN의 SDGs 항목은 ESG와 상당 부분 연관돼 있기에 대학의 ESG 실천 현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권오병 학무부총장은 “우리학교가 건학이념 실현의 일환으로 추구해온 다양한 활동들이 인정받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하면서도 “더욱 정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 연구, 실천 분야에서
ESG 경영 정책 운영 중

교육 분야에서는 경영대학의 행보가 눈에 띈다. 대학 차원에서의 ESG 경영 논의가 확산되기 이전부터 경영대학은 ESG 경영과 맥을 같이 하는 ‘책임 경영’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했으며, 최근에는 ‘ESG 경영’ 교과목을 커리큘럼에 추가 개설했다. 내년 3월부터는 하나의 학위과정으로 ESG 경영을 이수할 수 있는 ‘ESG 마이크로디그리’를 국제대학과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 분야에서는 지리학과와 유아영(환경학및환경공학) 교수팀의 기후변화연구가 중점 수행되고 있다. 권 부총장은 “지리학과는 GIS를 기반으로 기후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집단”이라고 전했다.

부총장실 주제로 ‘ESG 경영 기획 과제’도 진행 중이다. 권 부총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ESG 모델은 전부 기업 대상”이라며 “ESG 경영 전공자들이 공공성을 살린 도시 수준의 ESG 평가 모형과 대학 ESG 평가 모형을 만들어 국내와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컨설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임교원의 연구 관심 분야와 역량을 토대로 ESG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권 부총장은 “우리학교 교수들도 최근 ESG, SDGs 관련 교육과 연구, 실천에 매진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캠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SDGs 관심 분야를 조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위(48명)